

금융결제원 업무보고

2026. 1. 12.(월)

1. 소상공인 등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 및 금융접근성 제고 (국정과제 59, 61)

1

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(개인 → 개인사업자 대출)

1단계
(‘26.1Q)

- 은행권 신용대출 대상 **개인사업자 대출** 갈아타기 도입

2단계

- 서비스 안착상황에 따라 **참여업권** 및 **대환대상 확대** 방안 검토

소상공인 등의 **금융부담 완화**

② 마이데이터 중계업무 확대 (금리인하요구권, 개인사업자)

금리인하요구권



마이 비즈니스 데이터

‘26.1Q

‘26.上



마이데이터를 활용한
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



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
도입 지원

③ 은행대리업 중계시스템 구축

필요성

- 은행 영업점 감소에 따른 **금융소외 완화** 및 **금융접근성 제고**

추진방향

- 결제원의 **은행권 공동창구업무** 시스템 **고도화**
→ 참가기관 개발기간·소요비용 최소화

향후계획

- ‘26년 **상반기** 시범실시 추진
(은행,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 협의 중)

④ 대안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

개인 대안신용정보

자동이체(보험, 통신 등)
전자금융(계좌이체 등)

기업 대안신용정보

어음, 전자어음, 자동이체
B2B(외상매출채권 등)

소상공인 등 **개인사업자 지원**을 위한
특화서비스 개발 등 대안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

2. 금융권 AX 확산 및 AI를 활용한 금융범죄 대응 지원 (국정과제 21, 66)

① 정부 전략사업 참여 및 금융 특화 AI 모델 활용 지원

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(과기정통부)수행 ('25.8월~)

프로젝트 목 표

- 한국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활용 지원

결제원 역 할

- 국가대표 정예팀 중 **유일한 금융권 참여 기관**(업스테이지 컨소시엄)으로서 **독자 AI 모델의 금융지식 평가** 등 수행

<참 고>

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(과기정통부) 수행('25년 완료)

(사업 목표) 초거대AI 데이터* 구축 및 개방 추진

* AI 모델 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묶음

(결제원 역할) 금융분야 이상거래 판별을 위한 합성데이터* 구축

*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과 패턴을 모사해 생성한 인공 데이터 (금융사기, 자금세탁거래 등 사례가 드문 학습용 데이터 확보 유용)

② AI 기술 기반 금융권 공동 AML* 대응체계 구축 검토

* 자금세탁방지(Anti Money Laundering)

현 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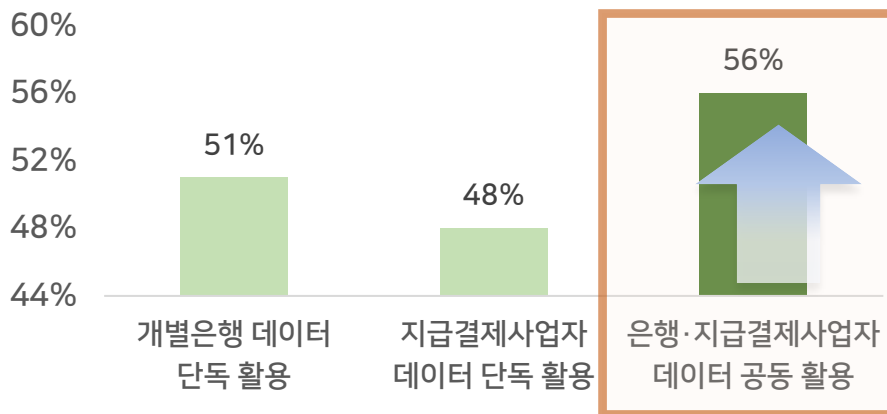
- 개별 금융회사는 자사고객의 거래정보만 보유
- 불법자금의 전체 이동흐름 식별에 한계

필요사항

- 금융회사별 거래내역과 금융회사 간 거래내역이 연계분석되어야 자금 이동경로의 입체적 파악 가능

※ 금융권 공동 AML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당국 앞 제언 예정

자금세탁거래 탐지 정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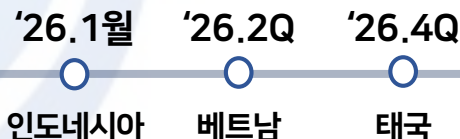


주) 자금세탁방지 방법론 개발 프로젝트(BIS 혁신허브, Project Hertha) 보고서('25.3월) 중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탐지 시뮬레이션 결과

3.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확대 등 결제·인증 편의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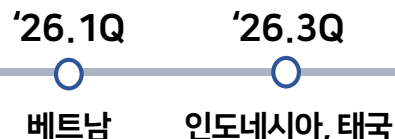
①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확대

해외QR결제



- 자국 은행앱 또는페이앱으로 해외 현지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

Cardless ATM



-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앱으로 해외 현지ATM에서 현지통화 인출

추진방향

- 금융결제원이 국내 은행과 페이사 등을 해외 지급결제기관과 연계

기대효과

- 국내외 여행객 결제 편의 및 국가간 결제 효율성 제고

② 은행 공동 본인확인 플랫폼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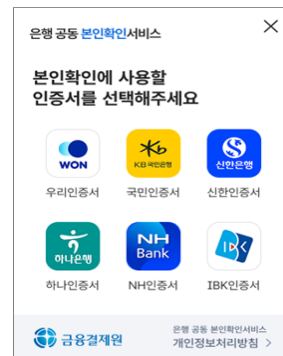
(1) 인증수단 선택

회원가입(본인확인)

은행 공동 본인확인

휴대폰 본인확인

(2) 은행 인증서를 선택하여 본인확인



추진방향

- 고객이 거래은행 인증서로 거래은행 외 이용기관에서도 편리하게 본인확인할 수 있는 은행 공동 본인확인 플랫폼 구축

향후계획

- 일부 서비스 대상 시범실시('25.12월) 중으로 서비스 보안을 거쳐 본격실시('26.7월) 예정

기대효과

- 휴대폰 본인확인 위주로 고착화된 인증시장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

※ 자체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은행 참여



감사합니다

금융결제원 업무보고, 2026. 1. 12.(월)